

‘고환율 영향’ 지역 기름값 11주 연속 상승세

10월 둘째 주 대비 광주·전남 각 84원·67원 올라 전남 경유 1천500원 돌파...“당분간 상승세 지속”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뛰면서 국제유가가 보합세에도 국내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 광주·전남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광주지역 휘발유의 리터(ℓ)당 평균 판매가격은 1천644.92원으로 10월 둘째 주 1천560.48원 대비 11주 사이 84.44원 치솟았다.

전남의 휘발유 가격도 같은 기간 1천595.89원에서 1천663.33원으로 67.44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의 상승 폭도 12월 들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11월 넷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 상승은 3.73원으로 이후 첫째 주에서 둘째 주 6.16원, 둘째 주에

서 셋째 주 7.44원, 셋째 주에서 넷째 주 6.45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남도 11월 넷째 주에서 12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4.3원, 같은 기간은 52.3원, 7.26원, 8.67원으로 계속해 상승하고 있다.

두 지역의 경유 가격도 차이를 보였다.

광주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10월 둘째 주 1천389.60원에서 12월 넷째 주 1천488.59원으로 휘발유 가격과 함께 11주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유 가격은 10월 넷째 주(1천428.84원)부터 9주 연속 상승해 12월 넷째 주 1천505.95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9월 이후 4달여 만에 다시 1천500원을 돌파했다.

전국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도 상승



국내 주요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2-26일) 전국 주요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 당 9원 상승한 1천662.2원을 기록했다.

하고 있다.

전국 12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직전 주 대비 ℓ 당 9원 오른 1천622

원을 기록, 경유도 ℓ 당 9.7원 상승한 1천507.2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6.6원 상승한 1천72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7원 오른 1천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 당 평균가는 1천655.4원이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 외신 보도, 중국 정세 불안 지속 등에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4달러 오른 73.7달러였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내린 80.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5달러 내린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기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번 들어 국제유가는 강보합 또는 약보합 흐름을 보여 가격 변동 폭은 크지 않았으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키웠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달러 기준 가격이 소폭 내려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가격이 올라 국내 판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음 주도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신세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돌입

내달 9일까지 130여종 최대 50% 할인

광주신세계는 29일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설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본관 지하 1층 푸드마켓에서 바이어가 직접 추천하는 설 선물세트 130여종에 대한 사전예약을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혜택과 수산, 정육부터 과일, 식료품까지 품목의 다양화로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부터 가성비 제품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했다.

신세계 직거래를 통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과일 선물세트인 ‘셀렉트팜’은 대표적인 설 선물세트로 손꼽힌다. 셀렉트팜은 신세계가 산지부터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격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상급의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셀렉트팜 사과배 혼합다봉’(17만1천원), ‘로컬 알찬 사과배’(9만9천원), ‘셀렉트팜 제주겨울향기’(9만5천원), ‘애플망고 만복’(20만2천원) 등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좋은 과일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특히 신세계의 축산 바이어 및 지정 중매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해 유통단계

를 줄인 ‘신세계 암소 한우 만복’(81만6천원) 제품도 대대적으로 선보인다.

더불어 한정수량으로 특별한 가격대로 만날 수 있는 ‘명품 한우 만복’, ‘안성 마춤 한우 만복’ 등 축산 직매입 제품들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수산 매장에서는 ‘탐라 진갈치’(2만 원), ‘성산포 은갈치’(13만8천원), ‘잡전 북다복’(25만 원) 등 직매입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특히 올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비즈와스 알코올셀100 세트’, ‘흑삼 산삼 배양근’, ‘아르기닌 마그네슘 부스터’ 등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50% 할인 혜택으로 준비했다.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선물을 추구하

는 고객들을 위한 수입 식료품도 눈에 띈다.

‘르메르블랑쉬 시어핀 플로드셀 소금 세트’(11만3천원), ‘지미트리플 4종’ (9만9천원), ‘마이칼리오스 소금 3종 세트’(4만 원) 등 20% 이상 할인 혜택을 통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곳곳부터 한우육포, 멸치 세트, 유기농 과실액 등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2025년 설 명절이 예년보다 빠른 만큼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상품을 사전예약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일부 품목은 한정수량으로 제공돼 미리 구매하면 명절선물을 한결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광주상의, 지역 우수기업 제품안내 책자 발간

車·가전·기계 등 146개사 참여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공동으로 ‘GWANGJU CCI 우수기업 제품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상의의 지난 9월부터 지역내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참가 희망 기업을 모집했고 146개사에서 참여를 신청해 책자에 수록하게 됐다.

이번 책자에는 자동차·부품, 가전·부품, 기계, 화학, 식품, 건축자재 등 업종별로 기업을 분류해 수요자가 찾기 쉽게 구성했고 각 기업 소개 부분에는 회사 소개, 주요 생산품, 제품 이미지·특징 등이 한 페이지에 수록돼 기업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임채만 기자



책자는 전국 상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배부하고 민원실 등에 비치해 지역기업과 제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상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기업의 현황과 생산제품 정보에 대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로 매출이 증대되고 새로운 판로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광주대, AI 인재육성 업무협약

재학·졸업생 대상 전문 교육·취업 지원...청년 취업률 제고

스마트인재개발원은 29일 “지난 27일 광주대학교 교육혁신지원실에서 AI(인공지능) 인재육성과 취업지원 등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준섭 인재개발원

이사장과 김동진 광주대 총장을 비롯해 임성식 스마트인재개발원 취업센터 본부장, 차현석 기획실장과 최재완 광주대 공과대학장, 김경태 대외협력처장, 임철홍 컴퓨터공학과장 등이 참석

했다.

양 기관은 AI시대를 맞아 지역발전과 청년 취업을 제고를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주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전문 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무료로 드립니다**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제!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신선함 그대로 푸른도깨비

자연과 생명 연구소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

CMYK